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남중섭 대표 : 010-7204-3775
2	×	×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박원희 대표 : 010-3872-6133

## 충청북도의원 테러사주 의혹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충청북도 김영환 도지사의 일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도지사 지인에 의한 테러사주의혹이 발생했다. 박진희 충청북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선생님(박진희)하고 셋을 작업 하라는 거", "끝까지 얘기하면 청부살인까지 가는 거지" 등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현직도 의원과 기자 2명을 포함한 3인에 대해 테러를 사주하는 내용이다.

박진희 도의원과 지목된 기자들은 청주시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김영환지사의 사고 당일 행적과 사고 책임과 관련한 내용을 파고들어 밝히는데 노력해왔다. 김영환 지사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라고 밝혀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으며, 제천시 산불발생 시간에 인근지역에서 술판을 벌인 것이 밝혀져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박진희 도의원과 기자들은 이에 대해 도지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끈질기게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박진희 도의원의 말처럼 "도지사 최측근을 자처하는 인물이 정당한 의정활동과 언론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직 도의원과 기자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하려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테러사주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여 발본색출 할 것

을 요구한다.

지방의원의 활동은 면책특권이 없다. 의정활동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과 폭언과 압력에도 노출되어 있으며 지방의원이라고 법적 보호를 받지도 못한다. 그러함에도 단체장과 지방 권력에 대한 부정의와 불법에 대해 밝히고 맞서는 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에 시민을 믿고 맞서왔다. 그러나 작금의 박진희 도의원 테러사주의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극악무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이번 일을 개인적 사안으로 폄하하거나 녹취와 편집을 문제 삼으며 도지사와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데에만 급급해 하는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논평은 사안의 본질과 중대성을 폄하하고 테러사주 의혹을 몰타기 하려는 술수일 뿐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의회 지방의원일동은 이번 사건이 지방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신을 훼손하고 지방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며 경찰은, 중대하고 엄정한 수사로 테러사주의혹과 사주한 인물까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2023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